

“권익보호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

경기북부 카바링 연합회 10월29일 창립총회



경기북부 카바링 연합회(회장 채덕순)가 10월29일 오후7시 포천시 소흘읍 송우위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권익보호와 원청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69명의 회원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고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회장 추대, 인사말, 임명장 수여, 회장 인사말, 사무총장 인사말, 연합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채덕순(사진·동남아 섬유 대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비록 늦게 출범했지만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원청회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회장은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연합회 목적달성을 위해 앞에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경기북부 카바링 연합회 10월29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위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권익보호와 원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원들에게 열심히 밀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임고수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앞으로 카바링 업계의 활성화는 물론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자”고 말했다.

경기북부 카바링 연합회는 스판덱스, 나이론, 폴리 등을 원료를 감아서 납품하는 업체로 생산량의 30%는 수출, 70%는 내수판매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포천시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9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0월29일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 출범하게 된 경기북부 카바링 연합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회장 채덕순(동남아 섬유)
- ▶ 부회장 엄기문(거산섬유)
- ▶ 부회장 이수복(수성섬유)
- ▶ 사무총장 임고수(제일섬유)
- ▶ 수석총무 이용원(장신섬유)
- ▶ 수석총무 장인선(거진)
- ▶ 총무 정정환(삼풍섬유)
- ▶ 총무 김남국(원광)
- ▶ 총무 정용규(정오)
- ▶ 총무 고봉근(선진)
- ▶ 총무 권경열(태역)
- ▶ 총무 김장수(부흥)
- ▶ 감사위원장 강상술(대양섬유)
- ▶ 감사위원 최현규(조흥섬유)
- ▶ 상임고문 강만수(명성섬유)
- ▶ 고문 엄영진(대성)
- ▶ 고문 송기양(대성)
- ▶ 고문 정명식(세창섬유)
- ▶ 기강위원장 하동홍(남해섬유)
- ▶ 기강위원 김명수(백두섬유)
- ▶ 기강위원 정기영(국성섬유)
- ▶ 운영위원장 허재규(보은섬유)
- ▶ 운영위원장 김영남(영남섬유)
- ▶ 운영위원장 임성태(오성섬유)
- ▶ 운영위원장 허정식(거창섬유)
- ▶ 체육위원장 이광덕(공작섬유)
- ▶ 오락위원장 유원준(유성섬유)
- ▶ 홍보위원장 김윤기(세한물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46 솔모루 어린이집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어린이집



원장 원순

솔모루 어린이집(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41-3 원장 원순)은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어린이집을 모토로 존경받는 교사, 신뢰받는 어린이집, 자랑스러운 어린이 육성으로 어린이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개원한 솔모루 어린이집은 ‘서로 사랑하며 밝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원훈으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기본생활습관이 잘된 어린이(도덕인),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어린이(창조인), 자기 일은 스스로 하고 협동·봉사하는 어린이(자주인), 의지력이 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건강인), 우리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소질을 잘 키워 가는 어린이(능력인)를 교육 목표로 유아나 어린이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페적인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솔모루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며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잔디밭에서 뛰어 노는 매뚜기나 기타 풀벌레 등을 관찰하며 자연생태학습과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건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철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지하에도 넓은 강당과 놀이시설 등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의 건강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솔모루 어린이집’의 노력 중점과제로는 ▶자기 정화, 동료정화 등 원내 자율정화의 활성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책 읽기 습관을 위한 도서프로그램 운영 ▶전래놀이, 전통 음률교

육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기르기 ▶장애, 문화, 인종, 성별 등의 편견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주제에 따른 현장 학습 실시 및 가정 체험학습 활동 확대에 있으며 ▶맞벌이 부부 자녀의 종일반 교육으로 안정된 사회봉사 실천 ▶유아의 안전보호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유아의 수준별 개별화 교육을 토대로 한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에듀-케어 교실의 심리적, 물리적 안정환경 제공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교재·교재 구입으로 교육 및 보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특색 있는 맞춤형 어린이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검증된 보·교육 교사들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아이들의 모든 분야에 불균형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남 거제도도 고향인 원 원장은 대를 이어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터라 운영에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위 곳이 공기가 너무 좋고 주위 경관이 수려해 위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원 원장은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기본 교육이나 정서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란 말이 있듯이 훗날 아이들이 삼국학교에 진학해서 몸도 건강하고 성적도

오후 특기반 영어로 말하기듣기, 역할놀이 연령에 따른 현장학습 활동 및 공연관람

좋은 학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본원에서는 아침 10시에 간식, 12시에 점심, 3시 30분에 간식, 5시 30분에 간식을 짜여진 식단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모루 어린이집’은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 180여명까지는 보·교육이 가능하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솔모루 어린이집’의 지원 자격은 2001.3.1~2005.2.28일 출생한 남·녀 어린이며 모집 대상은 유치반(만5세) 20명 정원 3인 60명, 유아반(만4세) 20명 정원 3인 60명, 유아반(만3세)15명 정원 3인 45명, 영아반(만2세) 7명 정원 2인 14명이다. 교육시간은 정규반 오전 9:00~오후 3:00, 중 일반 오전 8:30~오후 6:00까지다. 문의 T.031)544-3923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솔모루 어린이집은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어린이집을 모토로 존경받는 교사, 신뢰받는 어린이집, 자랑스러운 어린이 육성으로 어린이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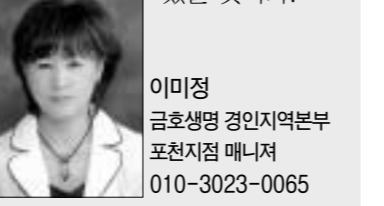
준비된 삶?

필자의 어렸을 때 장수만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를 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도 함께 불러요~ 지금의 30대 이후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매우 큰 축복이며, 누구나 원하는 바램이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건강만 하다면 노후 생활은 별 걱정 없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지내던 시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40여년의 노년 생활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비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직도 중간에 내가 80을 살지, 60을 살지 어떻게 아나며 나중 일은 모른다고 보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금까지 최고로 오래 산 노인도 130세를 넘진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다.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얼마

든지 연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길어진다. 사실은 목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인생 설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인식되어 있다. 상당수 노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 통계청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 연금 및 퇴직금 19%, 재산소득 13%, 예금 및 적금으로 9%, 소득이 있다 해도 65.3%가 월 소득 40만원 미만으로 노인 빈곤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젠 은퇴 후 25년을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70세가 넘어서까지 고단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생각을 가진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급속적인 노령화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의료비의 증가이다. 국민의료비의 상승원인

은 노인의료비의 급증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제 노인의료비를 감안한 은퇴설계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노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력력 부족 등이 불안한 노후의 원인을 초래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을? 바로 비극이 아닌 축복의 장수만세를 위하여!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가? 여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하자. 이 나무에서 내가 원하고 꿈꾸는 심심한 과일을 얻으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 그럼 이 나무를 언제 심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 지금 당장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럼, 노후 준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보험, 공공기관연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준비 수단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성인 남녀 2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2006년도에 정서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가 260만원 정도이다. 은퇴했을 경우 이 수준의 약 80% 정도를 표준 생활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약208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25년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6억원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률 4%를 감안한다면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 '10억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는 까닭이다. 물가상승률 따라잡기 위해 '변액연금보험'으로 노후생활비와 의료비를 해결하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정 금융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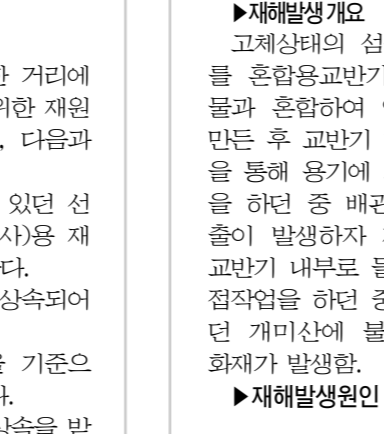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금융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억원이지만 비과세 한다. 금융임야(禁養林野) 금융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 승계인을 말하나, 호주 승계인이 제사를 모실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통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통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천900㎡까지만 비과세 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24과 870-4484-446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혼합용 교반기 내부 용접작업 중 화재

▶재해발생개요 고체상태의 섬유유연제를 혼합용교반기에 넣고 물과 혼합하여 액상으로 만든 후 교반기 하부배관을 통해 용기에 포장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교반기 내부로 들어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잔류하던 개미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재해발생원인 가.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실시 인화점이 69°C인 개미산이 첨가된 섬유유연제가 교반기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관용접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교반기 외부에 감시인 미배치 인화성물질이 들어있는 교반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 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



나 미 배치함. 다. 소화기 미배치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접작업 중 주위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 비치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전 세계 160개국 공적연금제도 시행

일본, 연금 운용 외부에 위탁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여 개국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통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기금운영 경험이 오래된 영미권 국가들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의 상위조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관리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은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한국 등에서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3각 체제로 구성돼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금 운용을 전담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까지 정부가 기금운용을 국공채 위주의 단순한 투자로 운용했고 연금재정 불안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위주로 한 투자전문기구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을 전담시켰다. 미국은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재무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 계획,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특징. 한편 일본은 운영감독은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수용은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투자자문회사 등에 맡겨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